

보도 일시	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12. 6.(화)	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	책임자	과 장	임창현 (044-200-556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영 (044-200-5565)

서해어업관리단,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

- 포획한 어획물 은닉 및 어획량 허위 보고 중국어선 1척 나포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2월 6일(화) 01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.

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*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의 적재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, 조업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(무궁화24호)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2월 1일 0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 후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물을 그물로 덮어 은닉하고, 어획량 또한 우리측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*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
< 나포 현황 >

일시 / 장소	선명	톤수	승선원	위반사항
'22.12.6(화) 00:45 /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km	요영어 A호 (중국 유망)	82톤	14명	어획량 축소 보고

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,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.

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“연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우리 측 정부에 허위로 보고하고, 어획물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.”라며, “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업자원정책관실 지도교섭과	책임자	과 장	임창현 (044-200-556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영 (044-200-5565)
<서해단>	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	책임자	과 장	손영우 (061-240-7903)
		담당자	계 장	최재봉 (061-240-7970)

